



알엠지 웹인증 보안 홀로그램 시스템 '스웍스'

위·변조 막는 홀로그램 스티커, 남미·UAE에도 수출

홀로그램 보안스티커업체가 '비상'이다. 중국산 '짜퉁' 화장품에 가짜 홀로그램 보안스티커가 붙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서다.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제 기술이 좋아졌다. 이 때문에 복제가 어려운 진품 식별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소기업 알엠지가 지난 7월 내놓은 홀로그램 보안스티커(모델명 스웍스)는 복제가 어려우면서도 일반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이다. 홀로그램 아래에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웹인증 절차를 통해 정품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김희정 알엠지 대표가 위·변조가 어려운 홀로그램 보안스티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우상 기자

QR코드로 진위 바로 확인 광학기술 접목한 제품도

짜퉁 복제기술 좋아지며 정품 확인 수요 커져

드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던 중소 화장품 제조사들이 먼저 찾았다. 스웍스 덕분에 짜퉁을 유통시키기 어려워지자 가짜 QR코드를 붙이고 가짜 인증 웹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짜퉁까지 나왔다. 김 대표는

"QR코드를 통해 도착한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면 가짜 웹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엠지는 김 대표가 7년간 다닌 무역협회 계열사를 나와 차린 회사다. 매년 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컨설팅을 하던 중 홀로그램 사업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창업했다. 김 대표는 "홀로그램 사업은 기술과 장비, 판로 등 '3박자'가 없으면 도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데다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홀로그램 보안스티커를 만드는 업체는

알엠지를 포함해 10곳 안팎이다. ◆"해의 진출 본격화" 알엠지는 이달 새로운 광학기술이 접목된 홀로그램 보안스티커를 내놓는다. 스티커 위에 마치 불록거울이 있는 것처럼 사물이 비쳐 보이는 '프레넬 미러렌즈' 기술을 적용했다. 스티커를 직접 만져보면 아무런 촉감이 들지 않는 평면이지만 눈으로 봤을 때 불록해 보인다. 프레넬 미러렌즈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국내에선 알엠지뿐이다. 김 대표는 "선불리 위조할 수 없는 기술이 많이 개발됐지만 일반인은 알아보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라며 "홀로그램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위·변조가 어려운 기술을 찾던 중 프레넬 미러렌즈 기술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매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스왑 알엠지-웹인증 보안 홀로그램 시스템(스웍스) 070-4077-0769 △고려도도-깨끗한독배기 (055)355-1679 △제오메이드-안전도어시스템 (032)245-4712 △한성비씨-스프레이형 간이스화기 EASY119 (055)295-3173

군포=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신선 난자' 연구 규제 이번엔 풀리나

(얼리지 않은 성숙한 난자)

현장에서 조미현 기자 바이오헬스부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비(非)동결 난자 사용을 허가해달라."(이동률 차의과대학 의생명학과 교수)

황우석 사태 후 첫 토론회 의료계·중요계 입장차 여전

지난 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생명윤리정책 토론회'에선 비동결 난자 연구 허용을 둘러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비동결 난자란 여성의 몸에서 얻은 얼리지 않은 성숙 난자(신선 난자)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동결 난자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미성숙하거나 수정에 실패해 폐기 예정인 비동결 난자는 활용이 허용된다. 신선 난자 연구 허용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이뤄진 것은 황우석 사태 이후 10여년 만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정형민 건국대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난자나 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난자 및 배아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연구 목표와 수행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하게 감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하정옥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책임연구원은 "임신이 절실한 난임 여성에게 난치병 치료를 위해 고통받는 타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신선 난자 제공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연구계와 종교·여성계의 시각차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금지시켰던 신선 난자 연구 허용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가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올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 교정하는 연구를 승인하는 등 영국 등은 불치병과 난치병 극복을 위해 배아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라고 소개한 한 방정석은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 규정이 엄격하게 수립됐다"며 "자체 검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했다. 무조건 연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허용하고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10년 동안 얼어붙은 국내 배아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mwise@hankyung.com



주방전용창-메탈릭창 한화L&C 출시

건자재업체 한화L&C가 '주방 전용창'(사진)과 '메탈릭창'을 출시했다. 주방전용창은 소비자 조사를 거쳐 기획된 제품으로 기존 주방에 사용되던 이중창과 달리 단창으로 설계했다. 메탈릭창은 창틀 표면에 일자 라인의 엠보 패턴을 입혀 입체감을 줬으며 라이트 그레이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삼원바이오텍 "온수매트로 中시장 뚫었다"

3만장 수출 계약 따내 중기청 수출 지원 성과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온수매트가 중국에 수출된다. 삼원바이오텍은 경기 양주시 지원을 받아 중국 광저우 캠페어센터에서 열린 '2016 추계 3기 캠페어'에 참가해 중국 바이어(구매자)와 온수매트제품 '삼바텍' 3만장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계약금은 290만달러(약 33억원)다. 삼원바이오텍은 이번 수출 계약 외에 중국 유통

업체 3~4곳과도 본격적인 수출에 앞서 시제품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은 중국 보조난방기구 시장에서 온수매트가 전기매트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희택 삼원바이오텍 대표(사진)는 "중국 남방 지역은 주거공간 내 난방설비가 없어서 보조난방기구가 필수적으로 쓰인다"며 "온수매트는 기존 전기매트와 달리 화재 위험성과 전자기파 문제 등 이 없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원바이오텍은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됐

다. 1만6000㎡ 규모의 생산공장을 운영해 원단 합포부터 접시기 연결 때까지 매트 생산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소화한다.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50만장 수준이다. 친환경 열원착색산방식 등 등록된 특허권도 3개다. 이 대표는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해 인지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박람회 참가한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등에도 입점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중국 시장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매출도 7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구몬학습·웰스정수기 서비스품질지수 1위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사진)의 구몬학습과 웰스 정수기가 한국 표준협회 '2016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에서 학습지와 정수기 사후관리(AS) 부문 각각 1위에 올랐다. 구몬학습은 4년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를 기록했다. 지난 3월 학부모를 위한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구몬세상'을 내놨다. 웰스 정수기는 자연 추출 소재인 '웰스스케일링 키트'로 세척하는 등 친환경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모십니다

강한 기업 만드는 '스마트 러닝'

강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까. 강한 직원을 육성해야 신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도 냅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인 알파코와 한국경제신문사 자회사인 한경BP가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강한 기업 만드는 스마트 러닝'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업무 공백과 예산 부족으로 임직원 교육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활용, 인력 개발 비용 부담을 덜었습니다. 수강자 모두에게 교육용 태블릿 PC(삼성 갤럭시탭 A 7.0)와 기업에

필요한 서적을 제공합니다. ●교육내용과 비용 △시리츠1: 직원의 열정 끌어내기, 똑똑한 팀을 만드는 비법,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경영 전략, 회계와 친해지는 지름길(4개월 과정, 39만9000원, 전액 환급) △시리츠2: 현장에서 답 찾아내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 최고경영자(CEO) 마인드로 일해야 하는 이유(3개월 과정, 40만2000원, 전액 환급) ●문의: 한경BP-알파코 스마트러닝사업본부 (02)2163-5751, 5733-4





www.29sfilm.com

가족과의 행복, 가정의 행복, 연인과의 행복, 직장에서의 행복, 여행의 행복, 도시의 행복 등 행복에 대한 모든 이야기

출품기간 2016년 10월 24일(월) ~ 11월 15일(화)

출품자격 제한없음(국내외 누구나)

부 문 일반부, 청소년부

총 상 금 1,500만원

시 상 식 2016년 11월 23일(수) 19:00 세종특별자치시청 4층 중정

출품방법 29초영화제 홈페이지(www.29sfilm.com) 온라인 출품(업로드)

출품규격 29초 길이의 모든 영상(제목, 크레딧 제외)
 • 해상도 : 1920x1080, 1280x720
 • 프레임 : 24fps, 29.97fps
 • mp4(권장), mov, mpg, avi, wmv 등 표준코덱 지원

주 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경제신문

주 관 편집국 영상콘텐츠전략본부 (29초영화제사무국)

문 의 전화 02-360-4029 이메일 director@29sfilm.com

더 자세한 내용은 29초영화제 홈페이지(www.29sfilm.com)를 참조하세요.